

중국 地名에 관한 연구*

閔載弘**

<目 次>

1. 들어가기
2. “中國”과 “中國”에 대한 다른 명칭
3. 중국 地名 속에 나타난 중국 문화
4. 중국 地名의 형식 및 地名에 사용된 通用 名詞의 특징
5. 나가기

1. 들어가기

地名은 한 민족의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명은 그 민족의 지리, 역사, 언어문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심리상태와 풍속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언어학자 L.R.Pamer는 지명 연구에 대한 학문(地名學)은 언어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명 그 자체가 어휘의 한 부분으로, 언어의 한 부호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지명 연구는 문화 어휘학(文化詞彙學)의 연구 대상이고, 문화 어휘의 중요 내용이다.

중국의 지명은 중국 민족의 문화 현상을 반영한다. 중국의 지명에 대한 연구(地名學)는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지명에 대한 중요한 근거와 보충을 통해 정확한 언어 인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9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jhmin@duksung.ac.kr

중국 지명은 중국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존재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 발전의 한 단면을 유추할 수 있다. 지명에 대한 연구 안에는 언어 현상, 종족 관념, 자연 변화, 사회 의식, 정치 현상, 종교 관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 지명 어휘의 생성은 모든 어휘의 형성이 그러하듯이, 단음절에서 이음절로 발전하였다. 商代와 周代의 지명은 대부분 단음절이었다. 商代는 일곱 번 도읍을 옮겼는데, 일곱 개의 도성 명칭을 보면, “毫, 囂, 相, 邢, 庇, 奄, 殷”으로 모두 단음절이었다. 춘추전국 시기의 지명 역시 단음절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漢代에 이르면 단음절의 지명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부터 중국어의 지명은 專名(지명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와 通名(지명의 내용을 나타내는 통용명사)으로 구성되어 다음절화 하였다. 심지어 삼음절 이상의 다음절 지명들도 많이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石家庄, 羊腸子溝, 大禿頂子山, 一三五食宿站” 등이다. 이처럼 중국어 지명 어휘의 음절 변화 과정은 중국어 낱말의 발전 변화와 같은 궤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중국 地名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이다. 우선 나라 이름 中國과 中國에 대한 별칭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이라는 명칭, 그리고 이에 대한 별칭들이 고대 문헌 자료나 전적 속에서 어떻게 유래하였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중국에 대한 별칭들의 생성과 발전은 어휘학적 측면에서도, 한 낱말의 생성과 발전 변화라는 어휘학 연구와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지명 속에 보이는 중국 문화의 현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 지명 속에 반영되어 있는 중국 문화의 여러 현상과 모습들을 각각의 내용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지명의 형식 구성과 지명에 사용된 통용 명사의 지역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문화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명에 대한 언어학적 형식 분석과 동시에 지역별 지역 명칭에 대한 문화 상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中國”과 “中國”에 대한 다른 명칭

中國을 지칭하는 국가 명칭으로는 여러 별칭이 존재한다. “中國” 뿐만 아니라, “中華, 華夏, 九州, 神州, 赤縣, 支那” 등으로 불리는 명칭에 대해서, 각각의 명칭이 어떻게 유래하고 형성되고 사용되었는지를 고대 전적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中國이라는 명칭은 商代에서 시작되었다. 갑골문에서 “中”은 유선형 모양의 깃발로, 商王은 大事가 있을 때, “中”자 깃발을 가운데 꽂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왕의 命을 전했는데, 이로부터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로 引伸되었다. 갑골문에는 “王作王師右中左”라는 기록이 있는데, 商王의 군대를 左中右 三軍으로 나누었다는 뜻이다.

商 왕조는 후기에 들어 제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어 사방을 통치하였는데, 東西南北 사방의 중심에 위치한 商을 “國中之國”라고 칭하였고, 이를 줄여 “中國”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中國”이라는 낱말이 등장한 최초의 시기는 대략 西周 初年이다. 周天子는 봉건제도를 실시하면서天子 중심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고, “中國”이라는 단어가 공고해지면서, 이 시기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거하던 華夏 민족은 사방에 거하던 蠻夷戎狄 이민족에 비해 스스로 “中國”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禮記·中庸』에 “是以聲名洋溢乎中國, 施及蠻貊”(이로써 명성이 중국에 넘쳐나, 蠻貊에 널리 퍼졌다)라는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西周 시기에 이르러서도, 제왕이 거하는 京都나 中原지역을 “中國”이라고 칭하였다. 『詩經·大雅·民勞』에 “惠此中國, 以綏四方”(이 중국에 은혜를 베풀어, 사방을 편안케 하리라)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 시기에 “中國”이라는 명칭이 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史記·考武本紀』에 “天下名山八, 而三在蠻夷, 五在中國”(천하에 명산이 여덟인데, 셋은 蠻夷에 있고, 다섯은 중국에 있다)라는 기록에서의 중국은 중원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같은 시기 『史記·天官書』에 보이는 “其後秦遂以兵滅六國, 并中國”

(그후 秦은 마침내 六國을 멸하고, 중국을 병합하였다)에서의 “中國”의 의미는 황하 유역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秦漢 이후에는 “中國”이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의미가 더욱 확장되었다. 중원지역의 漢民族 국가 “中國” 뿐만 아니라, 중원에 건립하는 정권도 모두 “中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심지어 南北朝 시기 南朝에 세워진 각 나라들도 “中國”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北宋, 遼, 南宋, 金 등 이민족과의 전쟁이 잦았던 시기에는 중원을 차지하는 나라가 서로 “中國”이라고 칭할 정도로 혼동스러웠던 명칭은 元明 이후 확실한 개념을 갖추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國名으로 불리는 “中國”은 중국 역대 정권에서 국호로 사용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단지 중원 지역의 나라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세력이 강성했던 漢이나 唐 시기에도 외부 세력들이 漢이나 唐을 “中國”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1911년 신해혁명 이후 건립된 “中華民國”에서 처음으로 국호로 채택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中國” 다음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인 “中華”라는 두 글자가 보이는 가장 최초의 기록은 『三國志·蜀書 諸葛亮 裴松之 注』인데, “中”은 “中國”을 지칭하고, “華”는 “華夏”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魏書 宕昌傳』에 “其地東接中華, 西通西域”(그 땅의 동쪽은 中華와 접하고, 서쪽은 西域으로 통한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魏晉南北朝 이전에 이미 “中華”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華夏”는 일찍부터 중국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夏”는 “大”의 의미를 갖는다. 『尚書 武成』 孔穎達 疏에 “大國爲華夏. 夏爲中國也.”(大國은 華夏를 말하고, 夏는 곧 中國이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한 “中國有禮儀之大, 故稱夏, 有服章之美, 爲之華.”(중국은 예의를 추구하는 큰 나라이므로 夏라 칭한다. 또한 복식과 시문 음악이 아름다워서 華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章太炎은 “華夏”의 유래에 대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華夏의 華는 華山을, 夏는 夏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華山은 河南省의 西部이고, 夏水는 湖北省의 漢水에 위치한 중원

지대이기 때문에 “華夏”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九州”는禹 임금이 治水에 성공한 뒤, 중국의 名山大川을 각 州의 경계로 삼아, 중국 지형을 9개 州로 나눈 것에서 유래하였고, 이후 중국을 “九州”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대 이래로 “九州”에 대한 명칭은 일치하지는 않는다.

『尙書禹貢』에서는 “冀, 豫, 雍, 揚, 兗, 徐, 梁, 青, 荊”으로 되어 있는데, 『爾雅釋地』에는 “冀, 雍, 豫, 揚, 兗, 徐, 幽, 營, 荊”으로 “幽, 營” 두 州가 들어가고 “青, 梁” 두 州가 빠져 있다. 『周禮夏官·職方氏』에는 “幽, 并, 冀, 豫, 雍, 揚, 兗, 青, 荊”을 九州로 언급하였는데, 『尙書』와 비교하면, “幽, 并”이 있고, “梁, 徐” 두 州가 없다.

『呂氏春秋·有始篇』에는 “九州”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가 언급되어 있는데, “河漢之間爲豫州, 周也. 兩河之間爲冀州, 晉也. 河濟之間爲兗州, 衛也. 東方爲青州, 齊也. 泗上爲徐州, 魯也. 東南爲揚州, 越也. 南方爲荊州, 楚也. 四方爲雍州, 秦也.”(黃河와 漢水 사이가 豫州인데, 이는 周나라이다. 黃河와 長江 사이를 冀州라 하는데, 이는 晉나라이다. 黃河와 濟水 사이가 兗州인데, 이곳이 衛나라이다. 동쪽 지역은 靑州로, 齊나라를 말한다. 泗水 위를 徐州라 하는데, 이는 魯나라이고, 東南쪽 지역은 揚州로, 越나라이다. 南쪽 지역은 荊州로, 楚나라이고, 四方 지역은 雍州라 하고, 秦나라를 말한다)라는 기록으로 당시의 “九州”에 대한 명칭과 지역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堯典』에는 “十二州”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冀州의 면적을 나누어 幽州와 并州가 추가되었고, 靑州를 나누어 營州를 추가하였다. 결국 “幽州, 并州, 營州” 세 州가 추가된 형태인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결국 “九州”는 중국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보편화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는 春秋戰國 시기 흥성과 멸망이 잦았던 여러 나라의 영토 변화를 반영한 명칭으로 파악된다.

唐代 王昌齡의 詩『放歌行』에도 “清樂動千門, 皇風被九州”(맑은 음악은 千門을 감동시키고, 皇風은 九州를 덮는다)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 역시 중국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에 대한 별칭으로 “赤縣”과 “神州”가 있는데, 이는 春秋戰國 齊나라의 사상가였던 鄒衍이 그의 地理學說 중에 제기하여 생겨난 이름이다. 鄒衍은 “中國名曰赤

縣神州. 赤縣神州內自有九州, 禹之序九州是也, 不得爲州數”(中國은 赤縣 神州로 불리는데, 赤縣 神州 안에 九州가 있기 때문이다. 禹 임금이 九州를 순서매김 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赤縣”과 “神州”를 중국의 별칭으로 최초로 삼았다. 이후 여러 문인들이 이 별칭을 사용하였는데, 晉代 詩人 劉琨은 『答與樞詩』 “火燎神州, 洪流華域”(불길이 神州를 감싸고, 홍수가 華域에 흐른다)을 지었는데, 여기서의 “神州”와 “華域”, 그리고 南北朝 詩人 江淹이 지은 『游黃蘗山』 “南州饒奇怪, 赤縣多靈仙”(南州는 기괴함으로 덮여있고, 赤縣은 신령스런 신선이 많도다)이라는 구절에서 보이는 “赤縣”은 모두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支那, 脂那, 至那” 등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중국을 칭하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중국에 대한 지칭으로 “支那”라는 명칭이 외국에서 사용된 가장 최초의 고대 문헌은 印度의 梵文에 보인다. 기원전 4C경 印度의 저작 중에 이미 “支那”(Cina)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고, 印度 『瑪奴法典』에는 “支那斯”(Chinas)라는 명칭이 보인다. 결국 여러 문헌을 종합하면, “支那”는 秦나라의 “秦”자에서 생겨나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秦의 세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서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秦人”으로 불렀다. 따라서 “支那”라는 독음은 印度어에서 왔는데, 印度어로 “支那”는 “秦地”(秦의 땅)라는 뜻이다. 『宋史·天竺國傳』에도 “伏願支那皇帝福壽圓滿”(支那 황제의 복, 장수, 원만함을 엎드려 바랍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支那”(China)는 印度를 비롯한 서역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존경과 칭송을 보여주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支那”라는 명칭을 쓰면서 중국을 폄하하였다.

3. 중국 地名 속에 나타난 중국 문화

3.1 종족 중심의 사회 문화

한족 사회는 종족 중심의 사회이고, 전통적으로 같은 종족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형태로 군락을 이루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지명에는 집성촌 형태의 많은 부락이나 “村庄”이 있다. 東北 지방으로 옮겨온 사람들은 대부분 山東 지역을 거쳐와서 독립적인 촌락을 형성하였는데, 이 때 종족 중심의 사회 문화 영향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씨를 따라서 지명을 정하였다. 羅常培는 “姓氏는 사회 구조 중, 일종의 혈연관계를 나타내 주는 부호(姓氏是標誌社會結構中一種血緣關係的符號)”라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李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중국의 지명을 찾아보면, “李村, 李庄¹⁾, 李家店, 李家鎮, 李家集, 李家街, 李家山, 李家寨, 李家岙, 李家灣, 李家橋, 李家埠, 李家坪, 李家堡, 李家嘴, 李家口, 李家鋪, 李家崗, 李家坊, 李家屯, 李家渡” 등이 있다. 모두 李씨 집성촌의 형태로, 이 지명에 보이는 “寨”는 “성채, 성읍”을 의미하고, “岙”는 “구릉, 언덕” 형태의 마을을 가리킨다. “灣”은 강과 맞닿아 있는 마을의 지명을, “埠”는 “선창가, 부둣가”의 지명에 사용되었다. “坪”은 평평한 마을을 지칭하며, “堡”는 “독이나 제방” 형태의 마을에 사용되는 지명이다. “嘴”는 촌락 형태가 주둥이나 부리와 같음을 의미하고, “崗”은 “산등성이, 산봉우리”에 위치한 산촌 부락임을 암시해준다. “坊”은 가게나 상점이 있는 마을, “屯”은 군사적 요충지나 군대가 주둔하던 형태에서 촌락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渡”는 나룻터가 있는 어촌 형태에 사용되는 지명이다. 이처럼 각각에 사용된 용어를 통해서, 당시 지명이 형성된 과정, 촌락의 생활 형태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명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의미의 명칭 찾거나 유래, 기원 등을 넘어서는 사회 문화적 연구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李씨 이외에도 다른 성씨에 이와 같은 형태의 지명이 있기 때문에 중국 지명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王家井(우물), 王家場(마당), 王家岩(바위), 王家坡(고개), 王家屯(언덕), 王家港(항구), 張家營(병영), 毛家冲(가운데), 馮家峪(산), 馬家峪(골짜기), 孫家墟(언덕)”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종족 중심의 지명이 중국 각지에 많은 형태로 존재한다.

1) 河北省의 성도인 石家莊이 대표적인 예이다.

3.2 고대 농경 문화

중국 지명 중에는 고대 농경 문화를 반영한 명칭들이 많이 존재한다. 西周 시대 井田制에 사용되던 용어가, 중국어 지명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면, 井田制의 촌락 조직 단위인 “邑, 丘, 縣, 都, 里” 등은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邑”은 갑골문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고, 농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의미한다. “邑”의 우부방 “卩”이 들어있는 글자들이 중국의 지명, 예를 들어 “郭, 邦, 鄒, 鄧, 鄭, 邢”으로 쓰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丘”도 원래 마을의 제신을 모시는 社壇의 소재지를 지칭하다가, 마을 단위의 통칭이 되었다. 春秋時代 “丘”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魯나라의 “中丘, 祝丘, 梁丘” 등이 있고, 齊나라의 “營丘, 葵丘, 貝丘” 등도 그러하다.

“里”는 고대 주거 단위의 전용 명칭이었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보이는데, 漢代의 “中陽里, 槐里”, 현대 중국 廣州의 “三元里”, 江蘇의 “同里, 黎里”, 貴州의 “凱里, 龍里”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고대 壯族 언어에 보이는 “那”는 “水田”(논밭)의 의미로, 壯族 사람들은 “那”자를 지명에 자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那坡, 那則, 那麗, 那陳, 那岳, 那龍” 등인데, 이 지역은 모두 농경 사회 분포 지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많은 지명에는 고대 농경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군사 활동

북방 지역의 많은 지명에는 고대 군대의 활동과 관련된 명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營, 屯, 堡, 寨, 衛, 關, 旗” 등이다. “營”과 “屯”은 군영, 즉 군대가 주둔하는 곳을 의미하고, “堡(작은 성), 寨(성채), 衛(방어구역), 關(관문)”은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군사 지역이다.

東北 지역 지명 중에 “新屯, 鄭家屯, 皇姑屯, 十里堡, 雙城堡, 黃旗堡” 등은 모두 고대 군대 활동의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또한 “汾州營, 達子營, 天津衛, 威海衛, 山海關, 嘉峪關, 函谷關, 連山關” 등도 모두 군사지역을 나타내는 通名이 사용되었다.

北京의 지명에도 이와 같은 명칭이 사용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屯, 營, 堡, 旗”字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三里屯, 四川營, 火器營, 汾州營, 十里堡, 藍旗營, 東三旗, 西三旗, 正藍旗, 廂紅旗, 廂黃旗” 등이 있다. “旗”는 본래 군사, 행정, 생산을 겸비한 조직 단위였는데, 淸나라 만주족이 중원에 들어온 이후 부터는 군사 조직으로 축소되어 八旗軍의 조직이 형성되었고, 현재 北京에는 八旗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旗”는 지금도 내몽고자치구에서는 縣 一級에 해당하는 지방 행정 기구이다.

漢唐시대 감숙성, 신장 일대에는 외부의 침략을 경비하는 누대가 많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天山南路 실크로드 지대에는 “亭”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이 있다.

3.4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

北京의 북부 지역 지명 가운데는 소나무와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 平谷縣의 “黃松峪”, 密雲縣의 “松樹峪, 松樹掌”, 延慶縣의 “松樹溝, 松樹梁” 등이다. 이는 지명이 식물이나 숲과 같은 자연 환경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명은 단순한 자연 지리 뿐만 아니라, 자연 지리 환경의 변화 까지도 반영한다.

上海의 고대 지명 중, 자연 지리를 나타낸 지명은 약 2900여개 인데, 이 중, 하천이나 강과 관련된 지명이 약 90%에 해당한다. 시기별로 보면, 戰國時代 上海지역은 “三江” 등 水域과 관련된 지명이 보이고, 秦漢南北朝 시기에도 “松江, 昆山, 柘湖, 瀟瀟, 谷水” 등 자연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唐에서 五代에 이르면서 上海 지역이 육지로 바뀌고 이에 따라 강이나 하천과 관련된 지명이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자연 지리의 변화는 元明시기에 일어나는데, 黃浦江이 吳淞江을 대체하여 上海의 중심 하천이 되고, 崇明島가 형성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명이 점점 증가

하게 된다. 이처럼 하천의 변화나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명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인문 지리적 개념을 반영한 지명도 보인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산의 남쪽을 陽, 산의 북쪽을 陰으로 칭하고, 물의 남쪽은 陰, 물의 북쪽은 陽으로 인식한다. 秦나라의 “咸陽”을 예로 들면, “咸陽”의 위치는 “渭水”의 북쪽, “九嶷山”의 남쪽이기 때문에 “陽”에 해당하고, “咸”은 “모두”라는 뜻이므로 “咸陽”은 산과 물로 볼때 “모두 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陽과 陰의 인문 지리적 개념이 들어간 지명은 “河陽”(黃河의 북쪽), “江陰”(長江의 남쪽), “淮陰”(淮水의 남쪽), “漢陽”(漢水의 북쪽), “洛陽”(洛水의 북쪽), “華陰”(華山의 북쪽), “衡陽”(衡山의 남쪽) 등 상당히 많다.

3.5 漢族과 다른 民族 사이의 교류와 접촉

중국의 지명 중에는 한족 이외의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다. 중국은 다민족과의 교류와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지명 역시 한족과 이민족 사이의 융합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들이 많다.

북방 지역 민족들은 대부분 알타이어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명은 대부분 다음절어이고, 현재는 대부분 중국어 音譯에 맞추어 簡化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몇 지명은 원래의 명칭 그대로 굳어진 예가 있는데, 東北지역의 “哈爾濱”²⁾, “齊齊哈爾”은 만주어의 지명 그대로 유지되어 전해진 것이다. 清代 이후 많은 만주족들이 東北지역에 유입되면서 그들의 언어에 따라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지명들로는, “下達屯, 呼蘭, 木蘭, 海倫, 愛琿, 吉林”³⁾, 富拉, 佳木斯, 伊通, 延吉, 富裕 등등이다. 黑龍江省의 “依蘭, 松花江”도 만주어의 영향을 받은 지명인데, “依蘭”은 만주어로 “셋”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은 지금도 세 개 부락이 생활하고 있다. “松花江”의

2) 만주어로 ‘어망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3) 청나라 때 이 지역의 송화강(松花江) 연안에 길림우랍(吉林烏拉)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만주어로 吉林은 ‘沿(~를 따라 있다)’이고, 烏拉는 ‘大川(큰 강)’이라는 뜻이다. 결국 吉林烏라는 ‘沿着松花江(송화강 연안에 있다)’라는 만주어이고, 이를 간단하게 吉林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만주어 발음은 “松加烏拉”인데, 만주어 “松加”는 天(하늘)의 뜻이고, “烏拉”은 河(강)의 뜻이다. 즉 “松花江”은 “하늘에서 발원하는 강”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지역의 지명 중에는, 중국어의 영향도 받아서, “만주어지명+중국어(峪, 河, 溝, 江)”형태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는데, “摩天峪, 螞蟻河, 綏芬河, 夾皮溝, 鬪枝溝, 寒葱溝, 牡丹江, 松花江” 등이다.

몽고어의 영향을 받은 지명 중에는 “胡同”이 대표적인데, 몽고어 “胡同”은 “水井”(우물)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도 몽고족들이 살고 있는 지명 중에는 “忽洞”(胡同)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賽音忽洞, 哈業忽洞”이다. 현재 北京의 많은胡同 명칭 중에는 몽고어의 영향을 받아 “몽고어 음역 + 胡同”의 형식을 가진 지명이 많다. “沙拉胡同”에서 몽고어 음역 “沙拉”는 “珊瑚”(산호)의 의미를 가지고, 지명 “義溜胡同”에서 “義溜”는 “風景優美”(아름다운 풍경)의 뜻을 가진 몽고어 음역이다. 또한 “官職名”(관직명)의 의미를 갖는 몽고어 음역 “牛錄”이 붙은 지명 “牛錄胡同”도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지명은 한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교류와 접촉, 융합으로 형성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몽고어의 영향이 남아 있는 지명으로는, “哈德門, 什刹海, 中南海, 北海, 後海” 등이 있는데, “哈德”은 元代 몽고족 “哈達大王”을 의미하고, “海”는 몽고어로 “水潭”(못, 저수지)를 의미한다.

중국 南方 지역은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지명 중에도,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은 지명들이 많이 존재한다. 雲南省 滇池 주변의 대부분 지명은 모두 彝族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지명들인데, 예를 들면 “宜良, 安寧, 路南, 呈貢” 등이다. 또한 雲南省과 貴州省 일대에는 12 띠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은데, “馬街, 鷄街, 猴場, 牛場”과 같은 지명은 모두 彝族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大理가 중심인 白族의 영향을 받은 지명도 상당수 있는데, “麗江, 鳳慶, 鳳儀, 彌渡, 鶴慶, 六庫, 騰冲”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傣族과 관련된 지명도 있는데, “西雙版納, 景洪, 德宏, 勐臘”을 들 수 있다.

廣東省의 서부, 雲南省의 曲靖, 廣西省 대부분 지역에는 “那”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있는데, 이는 壯族語로 “水田”(논)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廣東, 廣西 지역 지명 중, “都, 古, 六”자가 들어간 지명은 고대 壯族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古窰, 六合, 都吉, 吉練, 六務, 都六, 古都, 三都, 信都” 등의 지명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민족의 영향을 받은 중국 지명은 소수 민족의 언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적 고찰뿐만 아니라, 언어학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미개척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3.6 상업 및 경제 활동

상품 교역이나 시장 등, 경제 활동의 중심 지명에는 대부분 “集, 市, 店, 鋪, 場, 墟” 등이 사용되었는데, 華北 일대 농촌의 무역 중심지에는 “集, 市, 店”이 들어간 지명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고, 四川省 지명에는 “場”, 浙江省 일대 지명에는 “店”, 湖南省과 廣東省 일대 지명엔 “墟, 圩” 등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草市, 花市, 張飛店, 張良店, 長辛店, 瓦房店, 崔廟集, 雙堆集, 辛集, 六里鋪, 茶園鋪, 袁浦場, 長林場, 鹿角場, 聖堂墟, 陳墟” 등과 같다.

이러한 경제 활동이나 상업 활동 중심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축업 지역, 시장상업지역, 수공업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明清시대 北京 거리 지명 중에는 “馬, 羊”과 관련된 지명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北馬房, 瘦馬營, 馬市橋, 養馬胡同, 楊家馬圈, 馬神廟, 馬甸, 馬道口, 羊房北店, 羊市口, 羊毛胡同, 羊圈胡同, 羊市大街” 등인데, 이는 북방 지역 목축업이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羊房, 羊皮市, 牛市, 賣羊市” 등은 소, 양, 말의 전문 시장에 쓰이던 지명이 그대로 굳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지명은 남방지역에 보이지 않는데, 이는 중원지역이 목축업의 북방 한계선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⁴⁾

시장 상업 활동을 상징하는 北京 지역 지명 중에는 “珠市大街, 花市大街, 米市大街, 珠寶市, 缸瓦市, 燈市大街, 菜市口, 鮮魚口, 磁器口” 등으로, 모두 특정 상품이나 물품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던 경제 활동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수공업의 활동을 보여주는 지명도 많은데, “琉璃廠, 白紙坊, 鐵匠營, 大醬坊胡同, 大糖坊胡同, 木廠胡同, 打磨廠胡同, 針匠胡同” 등은 모두 북경 지역의 경제 활동을

4) 王國安 王小曼, 『漢語語彙的文化透視』,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참조.

보여주는 지명이다.

4. 중국 地名의 형식 및 地名에 사용된 通用 名詞의 특징

중국 地名을 분석하면,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專名) + 통용명사(通名)”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北京市”에서 “北京”은 專名이고, “市”는 通名이다. 또 “雲南省”에서 “雲南”은 專名, “省”은 通名이다. 따라서 專名은 通名 앞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중국 地名의 형식 구성을 언어학적 음절 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일음절 專名”, “일음절 專名 + 通名”, “이음절 專名 + 通名”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지명 중 일음절 형식으로 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고대에는 일음절 형태의 지명이 비교적 많았지만, 현대에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簡稱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각 지역에 대한 簡稱인데, “魯, 皖, 鄂, 湘” 등이다.⁵⁾ 그러나 이러한 지명 명칭도 현대 중국어 이음절화의 영향으로 실제 문장 속에서는 이음절화 하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면, “我雖久居滬上, 可惜見聞不廣.”, “津門三日之旅, 使這海外游子十分滿意.”⁶⁾와 같은 문장 속에서 일음절 지명 뒤에 다른 부가성분을 추가하여 이음절로 만드는 형태이다.

둘째, “일음절 專名 + 通名”의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和縣, 金鎮, 雙店, 楊村, 沙河, 涿縣, 黃村, 渾江, 黑河, 漠河, 定縣, 良鄉, 通縣, 沙市” 등과 같은 지명이다. 이러한 형태의 이음절 지명은 그 자체가 순수 지명으로, “縣, 鎮, 店, 村, 河, 江, 鄉, 市” 등과 같은 지명에 사용되는 通用 명사가 붙어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 지명 뒤에

5) 魯는 지금의 山東省으로, 이곳은 춘추전국시대 魯나라의 근거지였으므로 魯로 약칭된다. 皖은 지금의 安徽省으로, 省 안에 皖山이 있어서 皖으로 약칭된다. 鄂은 지금의 湖北省으로, 성도인 武漢을 唐宋 시대에 鄂州라고 불렀기 때문에 鄂으로 약칭된다. 湘은 지금의 湖南省으로, 省 안을 흐르는 湘水의 명칭을 따서 湘으로 약칭된다.

6) 上海 吳淞江의 옛 명칭인 滬濱에서 滬라는 약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津은 天津의 약칭으로, 明 永樂帝가 이곳에서 나룻터를 건너 출병하였다는 뜻의 “天子渡津”의 줄임말이다.

다시 통용명사를 추가하지 않는다. 즉 “涿縣縣, 沙市市”라고 하지 않고,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음절 지명 형태가 되는 형식이다.

셋째, 중국 지명 중 대부분은 “이음절 이상 專名 + 通名”의 형식을 갖고 있다. “重慶市, 山東省, 烏魯木齊市” 등의 형태로, 대부분 마지막 음절에 해당하는 通名을 생략하여 “重慶, 山東, 烏魯木齊”로 부를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周口店, 景德鎮, 黑水寺, 眞武洞”에서 보이는 通名인 “店, 鎮, 寺, 洞”은 이미 과거의 명칭으로, 생략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周口店”과 “景德鎮”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3음절 형태로 불린다. 그러나 현재 각각 행정 구역상 鎮과 市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지명으로 사용될 때에는 “周口店鎮, 景德鎮市”의 형태가 된다. “黑水寺”와 “眞武洞”도 이미 陝西省의 村鎮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3음절의 형태로 사용하지만, 정식적으로 사용될 때는 村과 鎮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어 지명에 사용된 通用名詞의 특징을 살펴보면, 같은 의미를 가진 낱말들이 각각 지역적 분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⁷⁾ 물줄기나 강을 나타내는 “溪, 浦, 港”의 通用名詞는 중국어 지명에 사용되어, “靑浦, 漳浦, 黃浦, 明溪, 張家港” 등 처럼 사용되었는데, 그 지역을 보면 福建省, 浙江省, 上海 등 지역의 지명으로 대부분 南方 지역의 지명에 사용되었고, 北方 지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里, 弄, 巷, 胡同” 등의 通用名詞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낱말이지만, “里, 胡同”은 북방 지역의 도시에 많이 쓰였고, “巷”은 남방 지역의 도시에, “弄”은 江南이나 上海 일대 지명에 전문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한편, “坊, 口, 條”는 北京 일대 지명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지명에 사용된 통용 낱말이 달라진 이유는 대부분 각 지역의 방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福建 閩南 지역은 암석이 많아서 돌로 지은 집들이 많은데, “石”의 방언에 해당하는 “厝”자가 지명에 들어가는 통용어로 많이 쓰여, “陳厝, 王厝, 朱厝, 魏厝” 등의 지명이 있다. 廣東 방

7) 중국어 지명에 사용되는 通用名詞의 내용을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산과 관련된 지명에는 “山, 峰, 嶺, 坡, 丘, 陵, 高原, 山脈” 등이 사용되고, 수와 관련된 지명에는 “水, 河, 江, 湖, 泊, 溪, 池, 潭, 溝, 浦, 海” 등이 전용적으로 사용된다. 땅의 모양과 관련된 지명에는 “島, 港, 灣, 洲, 角, 嶼, 半島, 盆地, 沙漠” 등이 등장하고, 마을이나 촌락의 종류에 따라 “鄉, 村, 庄, 鎮, 巷, 街, 道, 路, 弄, 胡同, 坊, 口, 條, 新村” 등이 사용된다. 건축과 관련된 지명에 사용되는 용어로는 “樓, 臺, 亭, 閣, 城, 寺, 廟, 宮, 觀, 庵, 堂, 鋪, 集, 墟, 場, 市, 店” 등을 들 수 있다.

언어에서 작은 강을 나타내는 단어는 “圳”인데, 이 지역의 지명에는 “深圳, 三圳, 梅圳” 등과 같이 “圳”자가 많이 사용되었다. 臺灣의 농촌 지명 중에는 “一甲, 二甲, 五甲, 六甲” 등과 같이 “甲”자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甲”자가 토지 면적을 측량하는 단위임을 이해하면 쉽게 수궁할 수 있다. 이외에도 “寮”와 “阡”과 같은 지명 통용자는 廣東省 서부 지역의 방언으로 이 지역 지명에 보인다.

이상의 방언 이외에, 자연 환경의 차이도 지명의 지역적 차이에 영향을 준다. 산이 많은 지역의 명칭에는 “尖, 際, 冲, 坪” 등과 같은 통용사가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浙南의 “黃茅尖, 高際”, 湖南省의 “韶山冲”, 陝西省의 “谷堆坪, 佛坪” 등을 들 수 있다. 면적이 넓은 논이나 언덕에는 “畝(밭 판), 埭(보 태)” 등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葛畝, 丁家畝, 鐘埭, 林埭” 등이다. 작은 물가가 밀집된 江浙 일대 지명에는 “浜(물가 빈)”자가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江蘇省의 “沙家浜”, 上海의 “張華浜”, 浙江 嘉興의 “西神浜” 등이다. 이처럼 자연 환경을 나타내는 용어가 지명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지역별 차이에 따라, 지명에 사용되는 통용 명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역별 문화적 상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나가기

한 언어의 어휘는 그 어휘를 사용하는 있는 민족의 문화 의식이나 심리 의식을 반영한다.

중국어 속의 많은 낱말이나 어휘를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지명과 관련된 어휘를 연구 분석하면,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중국과 중국인들의 문화 현상, 사상과 가치, 문화적 함의, 역사적 배경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지명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적 접근과 문화학적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지명에 대한 연구, 즉 地名學은 고대

문헌 자료와 전적 속에서, 그 지명이 어떻게 생성, 발전, 변화를 거쳤는가를 고찰하는 훈고학적 관점, 어휘학적 관점, 그리고 문화학적 고찰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는 “中國”이라는 명칭에 대해, 정확한 기원과 유래, 명칭이 기록된 자료들을 고찰하고, 또한 중국을 일컫는 중국에 대한 별칭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의 지명 속에는 중국 문화에 대한 여러 단면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종족 중심의 사회 문화, 고대 농경 문화, 군사 활동,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 漢族과 다른 民族 사이의 교류와 접촉, 상업 및 경제 활동 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명들을 열거하면서 지명과 문화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문화 어휘학 분야의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명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 중에서, 언어학적 분석을 빼놓을 수 없는데, 중국 지명의 형식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국 지명은 “고유명사(專名)+통용명사(通名)”의 구조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地名의 형식 구성을 언어학적 음절 구성을 “일음절 專名”, “일음절 專名 + 通名”, “이음절 專名 + 通名”의 세 종류로 분석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국 지명에 사용된 通名이 南方 및 北方 지역 등 각 지역별로 어떠한 상대성을 갖는지, 지역별 비교와 차이점 분석을 통해, 중국인들의 지명 사용 인식 및 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지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사회 언어학, 문화 어휘학, 지명 언어학 등 폭넓은 지명 연구 분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閔載泓, 「중국인의 성씨(姓氏)와 이름(名字) 연구」, 中語中文學 第40輯, 2007.
符淮青, 『漢語詞彙學史』, 安徽教育出版社, 1996.

- 常敬宇, 『漢語詞彙與文化』, 北京大學出版社, 1995.
蘇新春, 『當代中國詞彙學』, 廣東教育出版社, 1995.
蘇新春, 『漢字文化引論』, 廣西教育出版社, 1996.
沈錫倫, 『中國傳統文化和語言』, 上海教育出版社, 2004.
楊琳, 『漢語詞彙與華夏文化』, 語文出版社, 1996.
葉旭明, 『民俗韻』, 中國文史出版社, 2003.
王建輝 等 主編, 『中國文化知識精華』, 湖北人民出版社, 1989.
王國安·王小曼, 『漢語詞語的文化透視』,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劉叔新, 『漢語描寫詞彙學』, 商務印書館, 1995.
李炳官, 『常用2000漢字形音義源流字典』, 미술문화원, 1999.
錢玉蓮, 『現代漢語詞彙講義』, 北京大學出版社, 2006.
趙克勤, 『古代漢語詞彙學』, 商務印書館, 1994.
河永三, 『문화로 읽는 한자』, 동방미디어, 1997.
許光烈, 『漢語詞彙雙音節化源流初探』, 內蒙古民族學院學報 第4期, 1991.
許慎 撰, 『說文解字』, 黃山書社, 1993.
許威漢, 『漢語詞彙學引論』, 商務印書館, 1992.

〈中文提要〉

本論文是對中國地名的全面考察。地名學與語言學有着密切的聯係。就是地名是文化詞彙學的研究對象, 是文化詞彙的重要內容。在本論文, 首先研究中國和中國的別稱。中國又稱中華, 古代又稱華夏, 九州, 神州, 赤縣等。外國人也稱中國為支那。下次考察中國和中國的別稱在古代文獻如何使用。而且分析中國地名反映的中國文化現象。地名反映語言現象, 宗族觀念, 自然變化, 民族融合, 社會意識, 政治觀念以及宗教信仰等等。漢語地名一般有專名和通名兩部分構成, 而且地名的形式構成, 有三類。單音專名, 單音專名+通名, 雙音專名+通名。主要看是幾音節的, 有無通名, 通名可否省略。等等。綜合起來, 漢語中的地名是中國社會歷史文化信息的承載體。

關鍵詞 : 中國地名, 文化詞彙學, 中國的別稱, 文化現象, 形式構成, 專名, 通名

이 논문은 2010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